

이달의 초점

한국 여성의 건강 관리 현황과 과제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현황 및 시사점

| 박은자

여성의 부인과 의료 이용 현황과 과제

| 최승아

여성의 피임실천 현황과 시사점

| 전진아

여성의 건강리터러시와 건강행동

| 천희란·박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2년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 건강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질병관리청 수탁 과제로 2022년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 건강(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조사'를 하였다. 이 조사의 목적은 우리나라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 건강 현황 및 주요 이슈를 파악하여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2021년에 실시된 예비조사 결과 검토, 문헌 고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설문지 및 조사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건강 수준과 건강 행태, 월경(생리), 임신과 출산, 폐경(완경), 피임, 의료 이용, 성 관련 폭력과 성 인식, 일반적 특성으로 조사 내용을 구성하였다.

2022년 '한국 여성의 성·생식 건강조사'에는 전국 13~18세 여자 청소년 1019명, 19~64세 성인 3533명, 65세 이상 노인 1015 명이 참여하였다. 청소년과 성인은 코로나19 유행 상황, 성·생식 건강조사 문항에 대한 응답자 수용도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조사로, 65세 이상 노인은 낮은 디지털 기기 이용률과 온라인 조사 시 조사 문항에 대한 이해가 낮거나 조사 수용도가 낮은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면조사로 실시하였다. 향후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조사 방법을 확립하고 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 이달의 초점, '한국 여성의 건강관리 현황과 과제'에서는 2022년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 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여성 건강의 현황과 정책적·학술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성의 피임 실천 현황과 시사점¹⁾

Contraceptive use among Korean women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2022년에 수행된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 건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여성의 피임 실천 현황을 생애주기별 항상 피임 실천율과 피임 방법, 현대적 피임 실천율, 피임 주체와 피임 결정 주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살펴본 한국 여성의 피임 실천 현황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 및 초기 성인의 절반 정도가 성관계 시 항상 피임을 실천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한국 여성이 월경 주거나 질외 사정, 다른 피임 방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의도하지 않은 임신과 성매개 질환으로부터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임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여성 건강 및 성·생식 건강의 중요한 영역이므로 피임을 임신, 출산과 관련한 재생산 건강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청소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성 건강 및 피임에서의 자기결정권, 여성 건강의 논의 주제로 보다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피임 실천은 여성 건강의 중요한 분야이다. 국내외 연구들은 피임 실천과 피임 방법이 의도하지 않은 임신, 임신 중지, 성매개질환의 감염 등에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피임 실천을 여성 건강의 주요한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다(인구보건복지협회, 유엔 인구기금, 2022). 이에 따라 피임과 관련한 연구는 피임을 실천하기 위한 도구나 방법, 피임 실천에 대한 태도나 인식, 피임 자기효능감, 피임 실천의 향

1) 이 글은 2022년 질병관리청의 위탁 과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 건강조사’ 보고서에 제시된 피임 영역 원고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표 1]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 내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관련 정책 중 피임 관련 정책

정책 영역	정책 과제	세부 과제
5-4-4 안전한 피임과 임신·출산에서의 건강권 보장	피임과 임신 중단 실태 조사	- 피임과 임신 중단에 대한 실태조사
	안전한 피임 실천 정보 제공	- 피임 관련 올바른 정보 제공 - 남녀가 함께 피임 실천하기 홍보

자료: 김동식 외. (2021).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pp. 182-183.

상성 및 피임 실천으로 인한 결과(예: 임신, 성매개 질환 감염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김계하, 조은아, 2019; 이소영, 2022).

국내외 여성 건강 정책에서는 피임 실천을 강조하고 있으며, 피임 실천 및 피임 방법을 여성 건강의 주요한 모니터링 및 성과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임은 임신을 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임은 주로 ‘안전’, ‘현대적’, ‘효과적’이라는 표현들과 함께 활용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월경주기나 질외사정이 아니라 콘돔 등 안전 피임 도구, 현대적인 피임 도구를 활용하는 것을 피임 실천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국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에서는 모니터링하는 여성 건강 증진 목표 중 하나인 피임 실천에 대해 월경주기 등을 제외한 안전 피임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1). 해외의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도 현대적 피임 방법을 얼마나 실천하는지 여부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장은하 외, 2017)

피임 실천을 위해 국외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출산, 임신 중지, 성매개질환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고,

현대적이며 효과적인 피임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적절한 피임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한 여성 건강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2018;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1; WHO, n.d.). 그리고 국내에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및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 내 성·재생산 건강과 관련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피임 실천을 다루고 있다(김동식 외, 2021). 특히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서는 안전한 피임을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피임과 임신 중단 실태조사, 안전한 피임에 대한 실천 정보 제공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임 도구에 대한 근거 기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피임에 대한 근거들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근거에 기반한 피임 도구들을 대중과 공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CDC에서는 2013년부터 효과적인 가족계획 방법과 관련하여 피임 도구의 효과성 분석 결과를 ‘US Selected Practice

Recommendations’로 2~3년 주기로 업데이트 하고 있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2022년에 수행된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 건강조사²⁾’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여성의 피임 실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난 1년간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13~18세), 초기 성인(19~39세), 중장년(40~64세) 및 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피임을 얼마나 자주하는지, 피임 시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는지, 국내외에서 정의하는 현대적 피임 실천율은 어느 정도인지, 피임 실천을 하는 주체와 피임 실천

을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인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 여성의 피임 실천을 증진하는 데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여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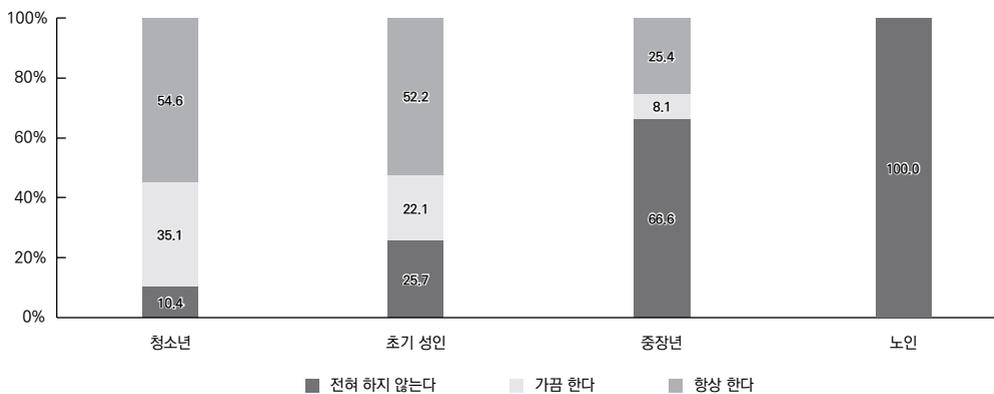
2 피임 실천 현황

가. 피임 빈도

한국 여성은 성관계 시 얼마나 자주 피임을 할까? 선행 연구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피하고 성매개질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관계 시 항

[그림 1] 지난 1년간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의 피임 빈도, 생애주기별

(단위: %)



주: 노인 중 '가끔 한다', '항상 한다'고 응답한 사례가 없어 그림으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박은자 외. (2022).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 건강조사, p. 74. <표 4-32>를 그림으로 수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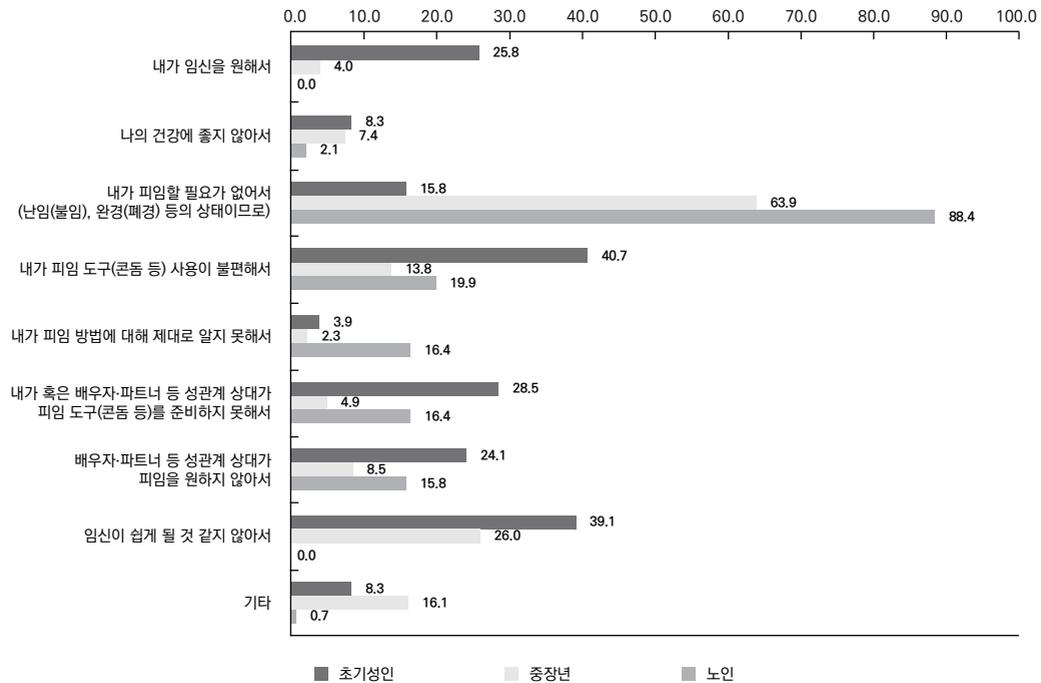
2)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 건강조사는 우리나라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 건강 현황 및 주요 이슈를 파악하여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국내에 거주하는 13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여성의 생애주기 기준으로 청소년기(10~18세), 초기 성인기(19~39세), 중장년기(40~64세), 노년기(65세 이상) 여성의 성생식 건강을 파악하였다. 청소년과 성인은 온라인 조사로, 노인은 응답 편의성을 고려하여 가구 방문 대면조사로 진행하였다. 조사에는 13~18세 여성 1019명, 19~39세 여성 1376명, 40~64세 여성 2157명, 65세 이상 여성 1015명이 참여하였다.

상 피임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한다.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 건강조사에서 지난 1년간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 초기 성인, 중장년 및 노인을 대상으로 성관계 시 얼마나 자주 피임을 했는지를 물어본 결과³⁾ 지난 1년간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54.6%, 19~39세 초기 성인의

52.2%, 40~64세 중장년의 25.4%가 성관계 시 항상 피임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항상 피임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낮아지는 데 반해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1년간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그림 2] 지난 1년간 피임을 항상 하지 않은 이유(중복 응답)

(단위: %)



주: 1) 중복 응답으로 각 이유 %의 합은 100%가 아님.

2) 노인에서는 '내가 임신을 원해서',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에 대한 응답 사례 수가 없어서 그림으로 표시하지 않았음.

자료: 박은자 외. (2022).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 건강조사, p. 75. <표 4-33>을 그림으로 수정하였음.

3) 한국 여성의 성생식 건강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지난 1년간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자 청소년은 77명, 여자 초기 성인 (19~39세)은 755명, 여자 중장년(40~64세)은 2099명, 65세 이상 여자 노인은 146명이었다.

10.4%, 초기 성인의 25.7%, 중장년의 66.6%, 노인 100%가 지난 1년간 성관계 시 피임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선행 연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성이 나타나는데, 이는 그동안 피임이 '임신'을 피하는 것으로 주로 이해되는 것과 관련성이 높다고 선행 연구는 지적한다(주경미, 장수지, 허정윤, 2012; 배영순, 손경희, 김남희, 2021). 보다 구체적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우려가 없거나 낮은 중장년과 노인은 피임에 무관심하고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선행 연구는 지적하고 있다(주경미, 장수지, 허정윤, 2012). 이와 동시에 선행 연구는 피임이 성매개질환 감염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므로 중장년과 노인이 성매개질환 감염을 조기에 인지하고 치료를 받도록 이들의 피임 실천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배영순, 손경희, 김남희, 2021).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 건강조사에서는 피임을 전혀 하지 않거나 가끔 한다고 응답한 여성을 대상으로 피임을 '항상'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⁴⁾ 초기 성인의 경우 본인이 피임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해서(40.7%),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39.1%), 본인 또는 파트너, 배우자가 피임 도구를 준비하지 못해서(28.5%) 피임을 전혀 하지 않거나 가끔 한다고 응답했다. 중장년은 내가 피임할 필요가 없어

서(63.9%),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26.0%) 피임을 전혀 하지 않거나 가끔 한다고 응답했다. 노인의 88.4%는 본인이 피임할 필요가 없어서 피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나. 피임 방법

항상 피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한 혹은 효과적인 피임 방법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나 성매개질환 감염을 예방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월경주기나 질외사정과 같은 불완전한 피임 방법은 피임 실패율이 높다. 질병관리청의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질병관리청, n.d.). 각 피임 방법을 정확하게 사용할 경우의 피임 실패율(최저 실패율)과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피임 실패율(일반 실패율)이 보고되어 있는데, 질외사정의 경우 최저 실패율은 4.0%, 일반 실패율은 18.4%였다. 월경주기는 최저 실패율 9.0%, 일반 실패율 25.3%로 다른 피임 방법들보다 피임 실패율이 높았다. 피임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는 남성용 콘돔의 경우 최저 실패율이 2.0%, 일반 실패율이 17.4%로 나타나 월경주기 조절법과 질외사정에 이어 높은 피임 실패율을 보인다.

그럼 한국 여성은 어떠한 피임 방법을 활용하고 있을까?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 건강조사

4) 사례 수의 제약으로 인해 여자 청소년이 응답한 내용은 그림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65.7%가 본인 혹은 파트너 등이 피임 도구를 준비하지 못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60%는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 54.3%는 본인이 피임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에서 나타난 피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난 1년간 성관계 경험이 있으나 임신이나 출산하지 않았으며 폐경 상태도 아닌 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피임 방법⁵⁾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피임 방법별로 보면 남성용 콘돔이 청소년 및 초기 성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피임 방법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년의 85.3%, 초기 성인의 62.3%가 콘돔을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콘돔을 제외하고 생애주기별로 보면 청소년의 경우 질외사정(64.0%), 월경주기(42.7%), 경구피임약(13.3%), 사후피임약(13.3%)을 사용한 피임 방법으로 언급하였다. 초기 성인의 경우 콘돔을 제외하고 질외사정(60.0%), 월경주기

[표 2] 지난 1년간 성관계 시 사용한 피임 방법

(단위: 명, %)

구분	청소년 (13~18세) N=75		초기 성인 (19~39세) N=685		중장년 (40~64세) N=744	
	N	%	N	%	N	%
콘돔(남성용)	64	85.3	427	62.3	222	29.8
페미돔(여성용)	1	1.3	15	2.2	4	0.5
질내 삽입기구(피셔리, 스펀지)	-	-	5	0.7	3	0.4
살정제(질좌제 형태의 약제)	-	-	6	0.9	6	0.8
경구피임약(성관계 이전)	10	13.3	117	17.1	39	5.2
주사피임제 및 피하이식 호르몬제(임플란트 등)	-	-	7	1.0	3	0.4
자궁 내 피임장치(IUD)(구리 루프, 호르몬 루프(미레나))	-	-	15	2.2	55	7.4
사후(응급)피임약(성관계 이후)	10	13.3	77	11.2	26	3.5
여성 반영구 피임술(난관절제술 및 난관결찰술)	-	-	5	0.7	14	1.9
남성 반영구 피임술(정관절제술 및 정관결찰술)	-	-	25	3.6	55	7.4
월경주기	32	42.7	251	36.6	268	36.0
질외사정	48	64.0	411	60.0	339	45.6
기타	-	-	12	1.8	47	6.3

주: 1) 성적으로 활동적이고(지난 1년 동안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음) 폐경, 임신, 지난 1년간 출산하지 않은 사람의 수를 분모로 하여 %를 산출함.

2) 청소년의 경우 사례 수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중복 응답으로 각 이유 %의 합은 100%가 아님.

자료: 박은자 외. (2022).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 건강조사. p. 76. <표 4-34>.

5)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 건강조사에서 활용한 피임 방법 문항은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되지 않았다. 또한 이 조사에서 활용한 피임 방법 문항은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 활용한 피임 방법 도구 제시 항목과 동일하다. 다만 두 조사에서 나타난 피임 방법에 대한 응답 비율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데, 초기 성인인 19~39세의 피임 방법과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의 19~49세 여성의 피임 방법(복수 응답, 4406명)을 비교해 보면 두 조사에서 모두 남성용 콘돔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조사에서는 가족과 출산 조사보다 경구피임약(성·생식 건강조사 17.1% vs 가족과 출산 조사 6.5%), 사후(응급)피임약(성·생식 건강조사 11.2% vs 가족과 출산 조사 0.6%), 질외사정(성·생식 건강조사 60.0% vs 가족과 출산 조사 29.5%)을 사용한 비율이 가족과 출산 조사보다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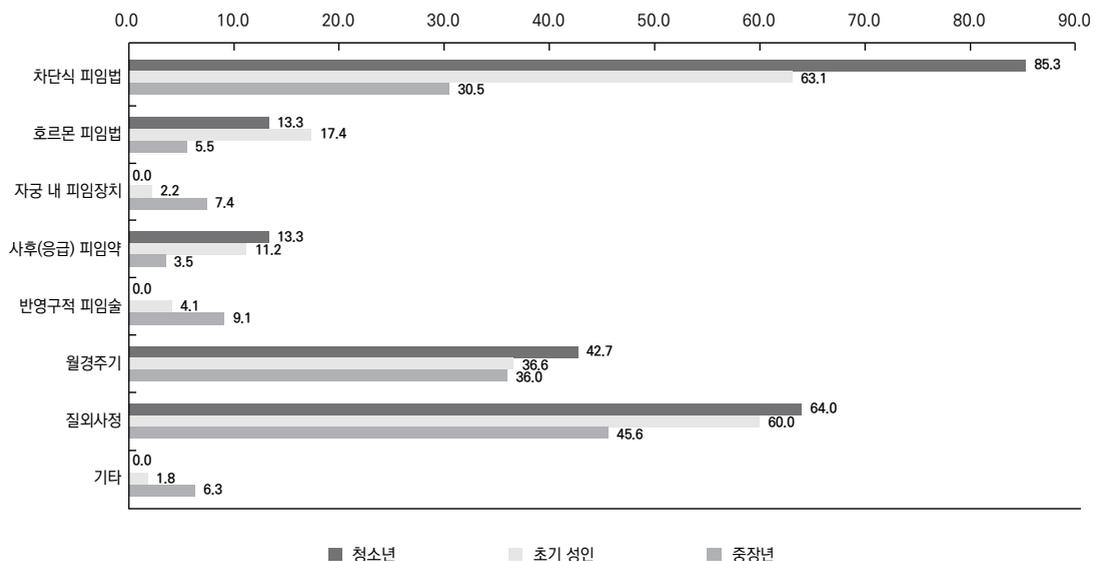
(36.6%), 경구피임약(17.1%), 사후피임약(11.2%)을 피임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중장년은 질외사정(45.6%), 월경주기(36.0%)를 피임 방법으로 응대한 비율이 콘돔을 사용했다는 응답(29.8%)보다 높게 나타났다.

개별 피임 방법들을 유형별로 묶어 사용률을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청소년과 초기 성인은 콘돔, 페미돔, 질내 삽입기구, 살정제를 포함하는 차

단식 피임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다음으로는 질외사정, 월경주기, 호르몬 피임법(경구피임약, 주사피임제 및 피하이식 호르몬제), 사후(응급)피임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장년의 경우 질외사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월경주기, 차단식 피임법, 영구적 피임술을 피임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 피임 유형별 지난 1년간 성관계 시 사용한 피임 방법

(단위: %)



주: 1) 차단식 피임법(Barrier methods)은 남성용 콘돔, 여성용 페미돔, 질내 삽입기구, 살정제를 의미함. 호르몬 피임법(Hormonal methods)은 경구피임약, 주사피임제 및 피하이식 호르몬제를 의미함. 반영구적 피임술은 여성 및 남성의 반영구 피임술을 의미함.

2) 성적으로 활동적이고(지난 1년 동안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음) 폐경, 임신, 지난 1년간 출산하지 않은 사람의 수를 분모로 하여 %를 산출함.

3) 청소년의 경우 사례 수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4) 중복 응답으로 각 이유 %의 합은 100%가 아님.

5) 청소년의 경우 '자궁 내 피임 장치', '반영구적 피임술', '기타'로 응답한 사례 수가 없어서 그림으로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박은자 외. (2022).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 건강조사, p. 77. <표 4-35>를 그림으로 수정하였음.

다. 현대적 피임 실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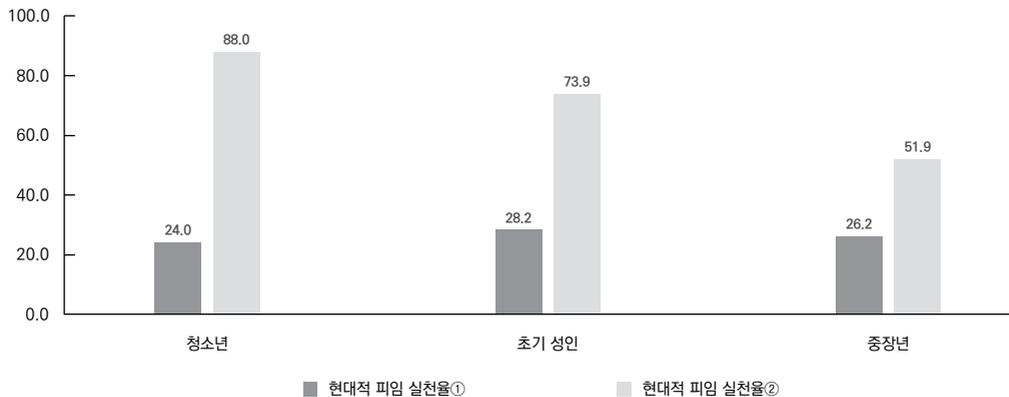
앞에서는 한국 여성이 얼마나 자주 피임을 실천하는지, 어떠한 피임 방법을 활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은 국내외 선행 연구에서 강조하는 효과적이고 안전하고 현대적인 피임을 실천하는 한국 여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본 결과다. 국내 연구마다 안전한 피임, 효과적인 피임, 현대적인 피임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질외사정이나 월경주기와 같은 피임 실패율이 높은 피임 방법을 제외한 피임 실천을 공통적으로 강조

한다.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 건강조사에서는 현대적 피임 실천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두 가지 방법으로 현대적 피임 실천율을 산출하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현대적 피임 실천을 가장 보수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성관계를 가졌고, 폐경이나 임신, 지난 1년간 출산하지 않은 사람 중 앞의 <표 2>에 제시된 여러 피임 방법 중 지난 1년간 월경주기와 질외사정 외의 피임 방법만 사용한 사람의 비율은 청소년 24.0%, 초기 성인 28.2%, 중장년 26.2%로 나타났다.⁶⁾ 이들은 피임 시 월경주

[그림 4] 현대적 피임 실천율

(단위: %)



주: 1) 현대적 피임 실천율①은 성적으로 활동적이고(지난 1년 동안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음) 폐경, 임신, 지난 1년간 출산하지 않은 사람의 수를 분모로, 지난 1년간 성관계 시 월경주기나 질외사정이 아닌 피임 방법만 사용한 사람의 수를 분자로 하여 %를 산출함.
 2) 현대적 피임 실천율②는 성적으로 활동적이고(지난 1년 동안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음) 폐경, 임신, 지난 1년간 출산하지 않은 사람의 수를 분모로, 지난 1년간 성관계 시 월경주기나 질외사정 외의 피임 방법을 1개 이상 사용한 사람의 수를 분자로 하여 %를 산출함.
 3) 청소년의 경우 사례 수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 박은자 외. (2022).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 건강조사. p. 78. <표 4-36>의 일부를 그림으로 수정하였음.

6) 여러 피임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중에 월경주기나 질외사정이 포함되면 현대적 피임을 실천한 사람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콘돔, 월경주기를 모두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현대적 피임 실천을 하는 사람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기나 질외사정을 피임 방법으로 전혀 활용하지 않고, 차단식 피임법, 호르몬 피임법, 자궁 내 피임장치, 사후(응급)피임약, 영구적 피임술만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방법에서는 현대적 피임 실천을 보다 광범위하게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즉 피임 방법 중 월경주기나 질외사정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차단식 피임법, 호르몬 피임법, 자궁 내 피임장치, 사후(응급)피임약, 영구적 피임술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로 현대적 피임 실천율(을)을 산출하였다. 규모를 보면 청소년 88.0%, 초기 성인 73.9%, 중장년 51.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한국 여성은 성관계 시 월경주기와 질외사정을 포함해 차단식 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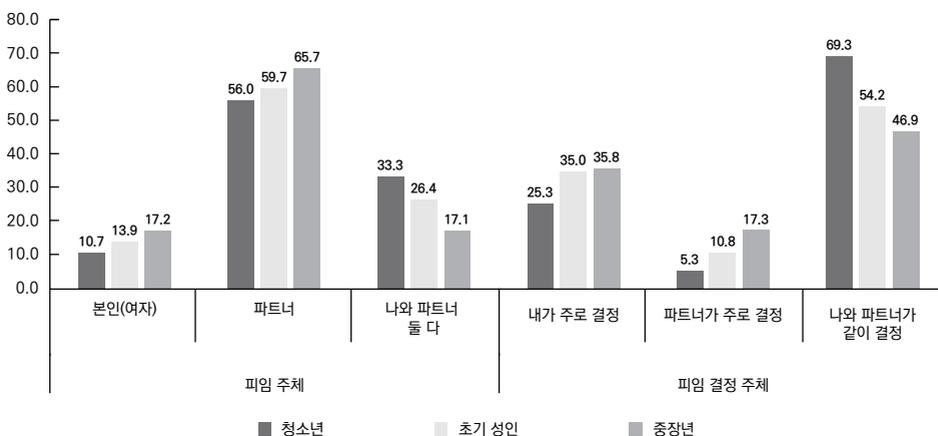
법, 호르몬 피임법, 자궁 내 피임장치, 사후(응급)피임약, 영구적 피임술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라. 피임 주체와 피임 결정 주체

우선 피임 실천과 관련해 국내외 선행 연구는 피임 실천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임의 주체는 누구인지, 피임 결정 주체는 누구인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다(이소영, 2022). 이소영(2022)은 피임에서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피임에서의 자기결정권은 재생산 건강을 향유하기 위한 여성의 권리와의 연관성이 있다

[그림 5] 피임 주체와 피임 결정 주체

(단위: %)



자료: 박은자 외. (2022).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 건강조사, p. 79. <표 4-39>를 그림으로 수정하였음.

7) 예를 들어 콘돔과 월경주기를 함께 활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첫 번째 정의와 달리 현대적 피임 실천을 하는 사람으로 포함하여 현대적 피임 실천율을 산출하였다.

고 보고하였다. 그럼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 건강조사에서 나타난 피임 주체와 피임 결정 주체는 누구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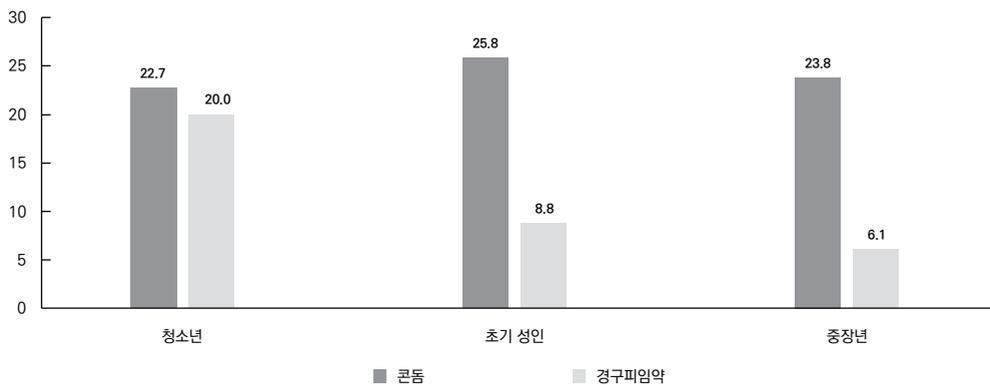
성관계 시 피임 실천과 관련해 피임 주체와 피임 결정 주체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성관계 시 피임을 주로 누가 했는지를 물어본 결과 청소년, 초기 성인, 중장년 모두에게서 파트너가 피임을 주로 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1년간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56.0%, 초기 성인의 59.7%, 중장년의 65.7%가 성관계 시 주로 파트너가 피임을 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성관계 시 피임 여부, 피임 방법 등 피임과 관련된 결정을 주로 누가 했는지를 물어본 결과 청소년의 69.3%가 본인과 파트너가 피임을 같이 결정했다고 응답했다. 초기 성인의 경우

본인과 파트너가 피임을 같이 결정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2%, 본인이 주로 결정했다는 응답은 35.0%로 나타났다. 중장년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이 조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성관계 시 원하는 피임 방법을 사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를 콘돔과 경구피임약에 한정하여 물어보았다. 우선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기를 원했지만, 배우자나 파트너 등 성관계 상대가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청소년의 22.7%, 초기 성인의 25.8%, 중장년의 23.8%는 콘돔 사용을 원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성관계 시 본인은 경구피임약을 복용하고 싶었지만 복용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청소년의 20.0%, 초기 성인의 8.8%,

[그림 6] 원하는 피임 방법을 사용하지 못한 경험률

(단위: %)



주: 본인이 원했으나 콘돔 사용 및 경구피임약 복용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만 제시하였음.
 자료: 박은자 외. (2022).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 건강조사. p. 80. <표 4-40>을 그림으로 수정하였음.

중장년의 6.1%는 경구피임약 복용을 원했으나 복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3 나가며

이 글에서는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 건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여성의 피임 실천 현황을 생애주기별 항상 피임 실천율과 피임 방법, 현대적 피임 실천율, 피임 주체와 피임 결정 주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살펴본 한국 여성의 피임 실천 현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⁸⁾ 첫째, 전반적으로 청소년 및 초기 성인의 절반 정도가 성관계 시 항상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항상 피임 실천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주로 활용하는 피임 도구는 남성용 콘돔이기는 하나 질외사정과 월경주기를 피임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 인해 현대적 피임 실천율의 경우 가장 보수적으로 적용했을 때 지난 1년간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의 4분의 1 정도가 현대적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 한국 여성이 월경주기나 질외사정과 다른 피임 방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피임 도구로 남성용 콘돔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피임의 주체는 주로 파트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임에 대한 결정은 파트너와 함께 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국내외 선행 연구들은 의도하지 않은 임신과 성매개질환으로부터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임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여성 건강 및 성·생식 건강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피임을 가임기 여성 혹은 혼인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한 재생산 건강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청소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의 성매개질환 감염 예방을 포함하는 건강한 성생활, 피임에서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관심으로 범위를 보다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피임 실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피임 실천 현황을 생애주기별로 폭넓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피임 실천, 특히 항상 피임 실천 및 현대적 피임 실천의 중요성, 피임 방법별 효과성 등 피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담긴 교육 및 홍보 자료를 구성하여 인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는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하며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 대상 학교 성교육 내실화, 초기 성인 대상 피임 교육, 노인 대상 성매개질환 예방 및 조기 치료 증진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8) 여자 청소년의 경우 지난 1년간 성관계 경험이 있는 사례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참고문헌

- 김계하, 조은아. (2019). 30대와 40대 미혼여성의 피임 지식, 성 이종기준과 피임 자기효능감 간의 관련성.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5(2).
- 김동식, 조영주, 김효정, 정연주, 동제연, 김남순, ..., 문주현. (2021)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은자, 전진아, 김남순, 최승아, 송은솔, 박주현. (2022).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 조사**. 오송: 질병관리청,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배영순, 손경희, 김남희. (2021). 노인 성병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5(2), 239-253.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1).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 이소영. (2022). 재생산건강 실태와 정책. *보건복지포럼*, 2022(6), 94-104.
- 인구보건복지협회, 유엔인구기금. (2022). **2022 세계인구현황보고서**.
- 장은하, 문유경, 조혜승, 김정수, 김지현.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 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경미, 장수지, 허정윤. (2012). **부산지역 노인의 성생활 및 가치관 분석**. 부산: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 질병관리청. (n.d.). 건강정보.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View.do?cntnts_sn=5414. 2023. 6. 12.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2018). *National Women's Health Strategy of 2020-2030*. <https://www.health.gov.au/sites/default/files/documents/2021/05/national-women-s-health-strategy-2020-2030.pdf>. 2023. 6. 14.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1). *Updating CDC's Contraception Guidance Documents: U.S. Medical Eligibility Criteria for Contraceptive Use and U.S. Selected Practice Recommendations for Contraceptive Us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WHO. (n.d.). *Sexual health*. https://www.who.int/health-topics/sexual-health#tab=tab_1. 2023. 6. 12.

Contraceptive use among Korean women

Jun, Jin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Survey by Life Cycle of Korean Women' conducted in 2022, this article explores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women's contraceptive use by life cycle. Results show that about half of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were always use contraception during sexual intercourse. And the majority of Korean women use menstrual cycles or extravaginal ejaculation along with other contraceptive methods. Practicing safe and effective contraceptive methods to prevent unintended pregnancy and infection from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is an important aspect of women's health and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Thus, it is necessary to expand contraception to the topics of sexual health, self-determination, and women's health rather than considering contraception as a simple topic of reproductive health related to pregnancy and childbirth.